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美의 기준도 바꿨다 '실용주의 전성기' 02



Economy

코스피	2403.15 (-0.58)	코스닥	871.92 (-1.58)
금리 (미국 기준)	0.923 (-0.002)	환율 (원/달러)	1147.10 (+0.30) (13일)

K-방역 등 사회적가치 실현... 함께멀리 가는 '착한기업'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1부 韓경제, 도전과 승전의 5년

② 코로나19 극복 '일등공신' 기업

삼성전자, 코로나에도 채용유지 3년간 총 4만명 고용 올 마무리 SK, 혈액 모으기에 계열사 동참 사회적가치로 계열사 성과 판단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조기지급 협력사 자금마련 저리대출 실시

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4만명 고용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말까지 3만2000명을 새로 채용했으며, 올해에도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약속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당시 4만명 채용 계획을 밝히며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19 충격에도 채용 규모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활용하는 등 노력으로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년 실업률이 8.9%로 OECD 평균(4.4%)을 2배 이상 넘어선 상황에서 취업 시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업 역할이 컸다. 단순 기부금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축으로 거듭났다. 미래 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경과 빈곤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물질양면 지원으로 'K-방역' 성공을 견인하며 진심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적극 나서며 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C랩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치료 시설 및 의료진 지원, 응원 캠페인 동참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다.

기부금 규모만 하더라도 수백억원대다. 4대 그룹만 봐도 삼성 계열사들이 300억원을 쾌척했으며, 현대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이 각 50여억원씩 내놨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방역 물품을 따로 지원하기도 했다.

의료 시설도 빌려줬다. 재계가 보유한 전국 연수원 10여곳이 생활치료센터로 제공됐다. 덕분에 병상 시설 부족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삼성은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도 단행했다. 삼성은 마스크 생산 업체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부족한 필터까지 공수하면서 국가적인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국제백신연구소에 개인적으로 10억원을 기탁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돕기도 했다.

재계가 힘을 합쳐 상생 활동도 이어갔다.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꽃을 구

입해 여러 사람들에 선물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시작으로 권영진 LG 부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 등 국내 주요 경영진들이 동참했다.

SK그룹은 한혈 캠페인으로 부족한 혈액 모으기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여해 화제를 모았고, 계열사별로도 주요 경영진이 일제히 동참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오르막길'을 통해 의료진과 국민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협력사도 살뜰히 챙겼다. 그룹별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자금 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따로 자금을 마련해 저리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등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전폭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준공을 비롯해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트럭 라인 증설 등이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추가... 75조 투입”

文 대통령 ‘뉴딜 전략회의’ 주재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망”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축으로 구상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 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담대한 지

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L7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

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자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75조3000억원을 투입해 ▲중앙 정부 주도형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모델로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4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영끌·빚투·전세난 가계대출 9.6조 ↑

한국은행, 9월 중 가계대출

지난달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달과 비교해도 최대치를 기록한 올해 8월 11조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주택매매와 전세 자금은 물론 주식시장 공모주 청약 수요까지 몰린 탓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 늘었다. 전월인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며, 9월만 놓고 보면 한은이 관련 속보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원 늘었다. 모두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전체 월별로 따지면 주택담보는 역대 다섯 번째, 기타대출은 역대 아홉 번째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6~7월 중 늘어난 주택매매가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증가 규모도 8월 3조4000억원에 이어 9월에는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과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있었다”면서 “다만 추석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줄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라임·옵티머스 감독 실패... 펀드사태 키웠다”

금감원 국감

장석훈 등 증권사CEO 증인채택 “공모시장까지 부정적 영향까지 펀드넘어 자금조달 기업도 위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야권이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케이트’로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에 전 현직 금감원 직원은 물론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감원 국감에서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업무상 필요한 법규 외의 내용에는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다”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4·5면)

윤 원장은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도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수뇌부와 금감원이 관계가 있는지 추

궁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이현재 전 부총리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우호적으로 일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양 전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감독인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 한 채 사기 펀드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와 깊은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윤석현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